

2008 국제학술회의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 발전전략

김 진 석
(전북발전연구원)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 발전전략

김진석(전북발전연구원)

1. 머리말

○ 최근 전북지역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익산·장수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군산-장항간 철도가 연결되고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등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음. 또한 첨단 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유치되면서 전략산업의 육성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함께 전북지역에는 최근 들어 현대중공업, LS전선, 동양물산기업, 두산인프라코어, SLS조선, 넥솔론, 동양제철화학, 대상, 다농 등 전북의 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전북지역 관련 정책들은 전북의 발전 잠재력을 구체화하여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정부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주요 국가사업의 하나로 인식하여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였음. 또한 광역경제권 구상을 통해 각 권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였음

○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리적으로 환 황해경제권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국토 서남부와 수도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충청권과의 중간지역에 위치하여 환 황해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전북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됨

○ 아직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전북이 서해안의 미래를 여는 창인 새만금의 개발과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뿐만이 아닌 국가경제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새로운 발전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전북지역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춤. 먼저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검토하고, 전북의 발전여건을 분석하여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한 전북의 발전전략을 모색함

2.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

1) 광역경제권의 배경과 필요성

○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화가 가속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 공간이 확대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자본과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새로운 공간경제 단위로서 대도시권 혹은 지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광역경제권은 새로운 공간경제체제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단위로 인식되고 있음. 오마에 겐이치는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에 가장 적합한 공간단위로 ‘지역국가(region state)’를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들은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음. 유럽에서는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는 독립적인 지역경제전략을 수립·추진하는 9개 광역지역을 설정하였으며, 프랑스는 지방분권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전국을 6개의 광역권역으로 구분하였음. 일본은 전국을 8개의 광역지방계획권역으로 설정하는 국토형성계획을 제정하여 추진 중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의 발전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중국의 경제성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다국적 기업과 자본, 인재, 정보가 중국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쟁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내적으로는 고속철도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광역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 간 경제활동이 촉진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 경남권과 호남권 등 광역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지역경제권이 대두되고 있음. 광역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은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화된 지역경제정책이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된 여건 속에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수준에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경제정책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음

2)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구상

○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은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1월 24일에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에서 제시된 광역경제권 구상에 기초하여 살펴 봄

○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지역간 공동발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공간단위로 7개 광역경제권을 설정하였음. 7개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된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분됨

○ 7개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위해 4대 정책기조와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4대 정책기조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창조적 협력 발전 촉진, 특성화 발전을 통한 성장,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 구축, 분권·협력·통합적 광역 행·재정 시스템 구축 등임. 6대 추진전략은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임

○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핵심내용은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적 유망주력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과 광역적 기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임

<그림 1> 정부(인수위)의 창조적 광역발전 구도



<그림 2> 정부(인수위)의 광역경제권발전의 6대 추진전략

① 광역경제권 연계 사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적 유망주력산업 육성사업, 공간구조 개선 공동사업(권역내 시설배치 협력), 광역기반시설 공동사업, 도농재생 및 생활환경 선진화사업, 공공디자인·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국제교류 공동 사업 • 新성장동력거점 조성(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남해안 선벨트)
② 규제개혁 등 시장 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 “일자리맞춤형 산학링크 계약제” 활성화 • 지방으로의 민자유치 활성화(실질적 컴퍼니 복합타운)
③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진출입 관문 확충
④ 낙후지역의 新발전 지대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지역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경쟁력 창조와 개발효과 확산 • 낙후지역 新발전패키지사업 • 산지 및 연안규제 등의 핵심규제개혁
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의 리모델링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수도권과 지방 간 산업연계체제 강화 • ‘수도권 계획적 관리와 지방육성통합법’ 제정 검토
⑥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제도의 시행 검토 • 광역경제권별 지역 자율형 지역본부체제 운용 •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 제정 검토

3)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

○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별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이원섭, 2008)

○ 첫째,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함. 광역경제권의 경제적 기반으로 권역의 경제적 자립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큰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광역 클러스터의 형성을 촉진하여야 함. 이를 위해 권역내·권역간 인력 및 연구개발, 생산기반 구축 등 기능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광역적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둘째, 광역경제권 중심도시의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함. 광역경제권 중심도시는 권역내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고급기능을 확보하여 권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광역경제권의 국제 인프라를 확충함. 광역경제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항과 항만이 확보되어야 함. 또한 권역내·권역간을 연결하는 광역 고속교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넷째, 광역경제권의 글로벌화를 추진함.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세계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의 육성에 있음. 일본 및 중국의 주요 경제권과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 다섯째,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함.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선도하여 견인할 수 있는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함. 이 프로젝트는 권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의 이해가 일치하고, 권역내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여섯째, 광역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함. 광역경제권은 다수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구축될 수 있음. 광역차원에서 정책을 기획·조정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2. 전북의 지역경제 현황 및 위상

1) 전북의 지역경제 현황

○ 전북의 지역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06년 현재 23조 8,927억 원으로 전국대비 비중이 3.1%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내 총생산의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율은 82.1%로 전북의 경제활동이 인구규모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줌

<표 1>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현황(200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10억 원, %)

구분	지역내총생산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	
	1994년	비중	2006년	비중	1994년	1996년
전국	516,296	100	767,405	100	100	100
서울특별시	130,859	25.3	163,073	21.2	112.4	101.8
부산광역시	34,108	6.6	41,851	5.5	79.1	74.4
대구광역시	21,488	4.2	23,414	3.1	77.6	60.2
인천광역시	26,537	5.1	34,829	4.5	99.3	84.5
광주광역시	11,996	2.3	15,983	2.1	82.8	73.0
대전광역시	12,312	2.4	16,881	2.2	85.3	74.0
울산광역시	-	-	38,352	5.0	-	224.8
경기도	90,849	17.6	171,864	22.4	99.8	100.1
강원도	15,992	3.1	19,699	2.6	93.9	84.0
충청북도	16,755	3.2	25,476	3.3	103.4	109.0
충청남도	23,982	4.6	45,268	5.9	114.8	146.3
전라북도	18,054	3.5	23,893	3.1	80.8	82.1
전라남도	25,900	5.0	32,570	4.2	107.0	107.7
경상북도	32,064	6.2	57,050	7.4	103.0	135.7
경상남도	50,234	9.7	50,588	6.6	112.3	101.9
제주도	5,166	1.0	6,616	0.9	88.7	76.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지역내총생산,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주 :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는 (지역별 총생산/전국총생산)/(지역인구/전국인구)×100로서 100이상이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크다는 것을 나타냄.

○ 이러한 전북 지역경제의 침체는 산업구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임. 2006년 현재 전북의 산업별 생산액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이 11.6%, 제조업이 28.3%, 서비스업이 62.8%로 전국 평균이 각각 3.6%, 32.5%, 63.9%인 것에 비교하여 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음

○ 그러나 전북의 산업구조는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의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996~2006년의 10년 동안 전북의 제조업 비중은 22.0%에서 28.3%로 증가하였음. 반면에 동기간동안 농림어업은 15.1%에서 11.9%로 3.2%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은 큰 변화가 없음

<표 2> 시·도별 산업구조(지역내총생산)

(단위: %)

구분	농림어업 및 광업		제조업		생산자서비스업		일반서비스 및 기타	
	1996	2006	1996	2006	1996	2006	1996	2006
전국	5.3	3.6	26.5	32.5	20.7	19.8	47.5	44.1
서울특별시	0.4	0.2	9.7	6.1	37.7	42.1	52.3	51.6
부산광역시	2.3	1.2	22.4	19.4	20.6	20.9	54.7	58.5
대구광역시	0.8	0.7	31.9	22.2	20.5	22.4	46.8	54.8
인천광역시	1.8	0.9	39.4	31.1	15.3	15.3	43.5	52.7
광주광역시	1.9	1.3	21.6	28.2	19.2	19.2	57.3	51.3
대전광역시	0.7	0.3	20.2	21.4	24.0	25.3	55.1	52.9
울산광역시	-	0.8	-	67.8	-	6.8	-	24.6
경기도	3.5	1.9	38.0	48.0	16.4	15.0	42.2	35.1
강원도	10.8	8.0	13.0	11.4	12.1	12.9	64.1	67.7
충청북도	9.9	6.1	35.0	45.2	12.3	11.1	42.7	37.6
충청남도	14.1	8.5	30.7	47.3	9.4	8.0	45.8	36.2
전라북도	15.1	11.9	22.0	28.3	13.4	13.0	49.5	46.8
전라남도	19.5	14.6	20.8	24.4	10.4	10.4	49.3	50.7
경상북도	11.5	6.7	36.8	51.6	11.1	8.1	40.6	33.7
경상남도	6.5	6.4	46.3	42.8	10.9	11.4	36.3	39.4
제주도	20.1	18.0	2.9	2.7	15.9	17.5	61.2	61.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주 : 2000년 불변가격 기준임.

○ 전북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전북의 제조업 성장은 전국 평균에 비해 부진한 상황임. 전북 제조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주요 지표에서 모두 감소하였음. 1996~2006년 기간 동안 전북 제조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사업체수는 2.4%에서 2.2%로, 종사자수는 2.8%에서 2.5%로, 생산액은 2.8%에서 2.6%로, 부가가치는 2.9%에서 2.5%로 각각 감소하였음

<표 3> 전라북도 제조업의 부문별 전국대비 비중

(단위: %)

구분	전북/전국	
	1996	2006
사업체수	2.4	2.2
종사자수	2.8	2.5
생산액	2.8	2.6
부가가치	2.9	2.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광업제조업통계, 각년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주 : 인구대비 상대적 점유도는 (지역별 부문별 값/전국 부문별 값)/(지역인구/전국인구)×100로서 100이상이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당 부문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나타냄.

○ 전북 제조업의 업종별 구조를 보면, 자동차, 음식료품, 화학제품이 중심산업으로, 이들 3개 업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각 24.3%, 18.4%, 15.7%를 차지하여 전체의 58.4%를 점하고 있음. 이 중 화학제품의 경우 식품 및 동물사료 첨가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전북 제조업은 사실상 음식료품 및 관련 업종과 자동차의 2개 업종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전북의 업종구조는 전북의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과 일치하는 것임

○ 전북의 제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공간적으로 전주, 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등 인접한 6개 시·군에 사업체의 81.6%인 2,097개, 종사자의 90.4%인 9,578명이 집중하여 제조업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이들 6개 시·군 지역은 전북의 주요 대도시가 위치하여 정주환경이 양호하고 기업지원서비스 기능도 집중하였으며, 공간적으로도 근접하여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양호한 여건을 지니고 있음

2) 광역경제권내 전북 전략산업의 위상

○ 전북의 제조업 분야에서 전략산업은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임. 이 중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과 생물산업은 전북지역에서 산업비중이 매우 높은 주력산업으로 부품소재산업 및 바이오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음. 방사선융합기술산업 및 신재

생에너지산업은 신산업 부문으로 다른 시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지 않는 차별화된 산업들로, 현재 기반이 취약하지만 향후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표 4> 전북 전략산업의 발전목표와 발전전략(제조업분야)

전략산업	발전목표	발전전략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부품·소재 혁신환경 조성 ○지식집약형의 국가 제조거점 조성 (R&D-제조-서비스역량 집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기능성 부품, 초경량소재 부품, 친환경 부품 연구개발 강화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체계 보완 및 확충을 통한 산업화 기반 조성
생물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식품·소재 산업의 HUB 및 세계식품산업 메카로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식품·소재산업 메카로 성장 ○기술개발 고도화 및 연관산업 네트워킹 강화와 혁신인프라확충 ○LOHAS지향 바이오식품·소재 산업 도출을 통한 식품 선진국 도약
RFT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RFT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세계 일류 RFT산업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RFT 연구/산업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자체 역할 강화로 지방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 ○방사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연료전지 자동차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 거점 전북에너지클러스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선도기업 50개 육성 및 기업지원 체계 강화로 글로벌 마켓 5% 점유 ○기업지원체계 강화 및 글로벌 마켓/네트워크에 편입

○ 전북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별 산업현황을 살펴보면, 호남광역경제권내에서 자동차산업과 바이오식품은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품소재와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임

- 자동차산업은 종사자수 기준으로 경기(24.3%), 울산(14.6%), 경남(10.9%)이 전국대비 10% 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으며, 전북은 5.6%로 호남권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세부 분야별로는 전북은 차체 및 트레일러의 전국 비중이 14.0%, 엔진 및 자동차가 8.4%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동차부품은 3.9%로 낮게 나타남

- 부품소재산업은 인천(31.4%)을 비롯한 수도권에 전체의 47%가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경남(11.2%), 경북(8.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전북의 전국대비 비중은 2.1%로 광주, 전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식품산업은 경기(32.3%), 경남(10.9%), 충남(10.4%), 충북(10.1%)의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전북은 5.9%로 호남권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세부 분야별로는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의 비중이 각각 9% 이상으로 매우 높음

-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에너지 생산량의 비중을 보면 울산이 28.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남(14.4%), 광주(11.3%), 전북(11.2%)의 순으로 호남권의 비중이 매우 높음. 호남권 내에서 전북은 풍력(53.8%), 바이오(9.7%), 태양광(8.2%) 분야의 에너지 생산량이 높으며, 전남은 태양열(23.8%), 태양광(9.2%), 연료전지(5.4%)의 에너지 생산량이 높음

<표 5> 광역권별 부품소재제조업의 전국대비 비중(종사자수 기준)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자동차	2.4	8.9	24.3	0.8	8.6	1.8	4.3	0.3	5.6	5.6	6.5	4.2	14.6	10.9	1.3	0.0
부품소재	8.7	31.4	7.2	1.3	5.8	3.8	2.2	2.3	2.1	4.8	8.3	5.4	4.8	11.2	0.9	0.1
바이오식품	4.0	4.1	32.3	1.4	10.4	10.1	1.2	3.3	5.9	2.7	5.1	4.3	1.0	9.9	3.7	0.6
신재생에너지	2.9	1.8	1.1	2.9	0.8	0.8	11.3	14.4	11.2	8.9	1.1	4.0	28.3	5.7	4.3	0.6

자료: 자동차, 부품소재: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2006)

바이오식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생산실적(2005)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 2006년 신재생에너지통계(2006)

주: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생산량 기준임(단위: Toe)

3) 전북의 지역발전 잠재력

○ 중국 동부지역에 대응한 산업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환황해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충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규모 있는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전북지역은 기계·자동차산업 생산역량과 항만·물류 인프라를 수도권 및 충남 일부지역의 첨단지식산업분야, 대덕의 R&D 특구, 광주·전남 및 동남권의 산업생산역량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음. 이와 같은 유리한 입지적 이점을 바탕으로 전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토 서남권의 대표적인 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

○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전북은 서해안 중심에 자리 잡아 중국연안 주요 도시와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환

황해권의 물류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대내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 등 환 황해권 중심축 형성에 필요한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음. 또한 충청권에 조성될 행정중심복합도시나 대덕 R&D 특구 등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수도권~광양~부산권을 잇는 국토 동맥의 핵심 링크로서 지리적·경제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로서, 지역 자체적인 혁신역량이 확보될 경우, 동북아~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및 교역 거점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향토산업 관련자원과 깨끗한 자연환경 및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미비했던 항만,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며,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함께 산업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림 3> 환황해 경제권의 주요 거점과 전북의 잠재력



자료: 전라북도(2007)

3.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전북의 발전전략

1) 세계 경제자유기지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

○ 전북은 중국시장과의 근접성, 양질의 인력, 저렴한 산업용지, 양호한 자연·문화환경 등 입지여건과 발전 잠재력이 양호하여 환 황해경제권의 교통·물류 및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새만금은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큼

○ 특히, 새 정부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국정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 기지로 활용할 계획임(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2008). 이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 항만·물류, 식품·가공,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 국제금융센터, 항공·우주복합과학단지 및 환경단지 등의 조성을 고려하고 있음

○ 전북에서는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충청, 경기를 잇는 광역적 연계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경제거점들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임

2) 전주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거점 조성

○ 전북의 중심도시로 전북 산업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산업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전주 광역도시권을 광역경제권의 거점으로 조성함

○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김제, 정읍은 공간적으로 반경 2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규모가 150만을 상회하는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음. 또한 대학, 연구소 등 R&D 기능과 기업지원서비스 등이 발달하여 산업클러스터의 혁신기반을 비교적 잘 구비하고 있음

○ 전주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호남권 내 광주, 전남 및 인접한 충남, 대전과 광역적 연계를 통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추진함

3) 자동차(부품소재), 식품을 글로벌 경쟁거점산업으로 육성

○ 광역경제권 내에서 전북의 전략산업 중 집적도가 높은 자동차(부품소재),

식품산업을 광역경제권 전략산업으로 육성함

○ 자동차(부품소재) 산업은 전북의 중심산업으로 산업특화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산업집적지의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또한 공간적으로 전북은 자동차산업이 발전한 충남 및 경기 서남부지역과 광주, 전남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여 있어서 광역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산업발전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산업과 함께 전북은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을 주요 산업육성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탄소소재산업의 육성이 추진되고 있음. 탄소소재 산업화는 전북이 유일하며 타지역에서는 대체로 기업, 대학, 연구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전북지역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유치되는 등 전북지역은 연구개발과 산업생산의 선도지역으로 전북지역이 국가적 차원의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식품산업은 전북에서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식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문임. 전북지역은 농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부문의 연구기관들이 이전하는 혁신도시가 입지하였고 또한 관련 연구개발기능들이 풍부하여 전국적인 농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큼. 또한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함께 식품전용항만의 건설을 계획 중으로 농식품관련 물류체계도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4) 첨단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 전북지역의 발전거점과 광역경제권 내·외부를 연결하는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간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 새만금지역과 경북지역을 도서로 연결하는 동서철도노선 및 고속도로의 건설, 충청, 경기 및 전남을 연결하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조성되는 새만금과 국내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또한 전북의 중심지역인 전주 광역도시권과 새만금을 광역적으로 연결하는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이와 함께 새만금 연계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전북지역의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며, 국제농식품 물류거점으로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5) 거점지역과 낙후지역의 연계발전 추진

○ 전북지역은 전주 광역도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극심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의 낙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전북의 동부권은 인수위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에서 6대 낙후지역으로 명시된 덕유산 지역 일대와 지리산 지역 일대에 속하는 지역임

○ 그러나 이들 지역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고유의 문화적 자산 등 풍부한 어메니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특화산업이 발전하여 이들 자원들을 활용한 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낙후지역의 농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가공 및 문화·관광산업으로의 연계 육성을 통해 총체적 발전전략을 추진함. 이러한 발전전략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 내 거점간 연계망의 체계화 및 개발축별 특화기능을 부여하여 지역간 연계와 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계개발 전략을 추진함

○ 또한 전북의 거점지역인 전주 광역도시권과 이들 낙후지역 권역을 연계하여 거점지역의 사업 및 인구, 연구개발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함